

2008년을 보내며...



우리 학회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개최하는 연구논문발표회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규모나 내용면에서 세계적인 고분자학술회의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발표마다 활발한 토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발표장 중에서도 포스터 발표장에서 더욱 뜨거운 열기를 느끼는데, 구두 발표와는 달리 포스터 발표자의 대부분은 대학원생들이고, 질문자의 대부분도 학생들입니다. 투박하지만 거리낌 없는 질문과 답변, 젊은이 특유의 밝은 웃음소리까지 뒤섞인 발표장에 있으면 활기차게 전진하는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묘한 소속감이 듭니다. 학회에서는 주요 사업으로 연구논문발표회 개최와 더불어 국문학술지, 영문학술지와 “고분자과학과 기술”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문학술지와 영문학술지 모두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고분자과학과 기술”지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우수한 연구 및 교육 자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 동안 학회지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편집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에는 학회가 설립된 후 처음으로 산업계에서 회장님을 모시게 되어 학회운영의 화두가 자연스럽게 산학연협력이 되었습니다. 현재 학회의 회원이나 운영진의 대부분이 학연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특히 학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학생 회원들의 대부분이 산업체에 취직을 한 후 학회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생각할 때, 산업체 회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2008년에는 산학협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고분자포럼, 산학연 심포지움 등 산업체에 계신 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춘·추계 연구논문발표회에는 많은 수의 업체들이 전시회에 참가하여 회사 홍보를 하였습니다. 산업계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에서 나타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통계 수치들이 전반적으로 좋아 전무이사로서 매우 기쁘며, 여러 가지 학회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신 운영이사 및 학회 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이공계와 인문사회계를 통틀어 융합화라는 일종의 구호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 구호는 학문분야의 정의로부터 연구 분야, 연구 방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융합화의 세세한 방법론에는 논쟁이 있겠으나 개념적으로는 구호의 목적이나 타당성이 별 거부감 없이 와 닿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이해는 아마도 제가 고분자 분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고분자 분야에서는 이런 융합의 개념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분자 분야에는 태생부터 과학, 공학, 산업이 어우러져 있고, 화학, 물리, 생물, 기계, 전자, 재료 등 광범위한 영역의 이론이나 발견들이 고분자 연구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나노기술도 고분자 분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고분자학회에는 학부나 대학원에서 앞에 열거한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고분자학회는 이런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회에서 발간하는 영문지에 외국으로부터의 투고가 증가하고, 연구논문발표회에도 더 많은 외국인 발표자가 참가하는 학회의 국제화도 기대해 봅니다. 양적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체 회원의 참여 유도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해 산업계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여 적으나마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회에 참가하여 배울 것이 많으면 왜 안 나가겠느냐,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가 산업계의 요구에 못 미친다 등의 산업계 회원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학회가 학연만의 모임은 아니었으나 하는 반성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인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

세밑이 가까워 오면 심신이 움츠러들기 쉬운데, 예상치 못했던 경제위기로 모두의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학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렵다는 2009년 모두 화이팅하여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도 고분자학회 전무이사, 장지영>